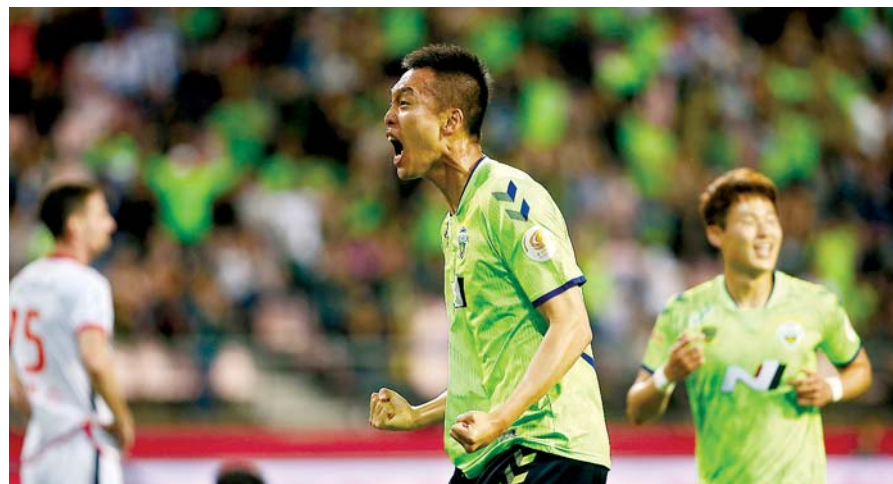




박주영과 볼 경합하는 박건하(오른쪽).



득점 후 포효하는 김신욱.



득점왕 차지하던 1998시즌의 유상철.

연합뉴스

“어제는 공격수 오늘은 수비수... 축구 재능 발견했어요”

축구에서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 익숙한 포지션을 바꾸는 건 힘들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포지션을 바꾼 뒤 승승장구하는 선수들이 있다. 공격과 수비를 오간 박건하부터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서 '베스트11'에 뽑혀 본 유상철, 김주성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포지션 변경에 성공한 K리거들을 소개했다.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수원원의 레전드 박건하

1996시즌 공격수로 수원 삼성에 입단한 박건하는 그해 34경기에서 14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끌었고, 신인상까지 받았다.

이후 2001시즌까지 줄곧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센터백이 부족했던 수원은 박건하에게 포지션 변경을 권유했고, 2002년 9월 4일 전북전을 시작으로 수비수로 출장했다. 공격수 출신답게 공격수들의 심리를 잘 알던 박건하는 안정된 방어 능력을 선보이며 2006년까지 수비수로 활약하고서 은퇴했다.

현역 중에서는 김태환(울산), 김문환(부산), 김진야(서울) 등이 측면 공격수에서 측면수비수로의 전향에 성공한 선수들이다.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고공 폭격

포지션 변경해 성공한 K리거들

김호곤 감독, 김신욱 공격수 출신 '신의 한 수' 유상철·김주성 골키퍼 빼고 모든 포지션 활약

기' 김신욱

반대로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꿔 대성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은 중국 슈퍼리그 무대에서 뛰는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상하이 선화)이다.

현재 K리그 통산 득점 3위에 올라 있는 김신욱이지만, 원래는 중앙수비수로 프로경력을 시작했다.

2009년 드래프트를 통해 울산에

입단할 때만 해도 센터백이었던 김신욱의 인생을 바꾼 은인은 김호곤 당시 울산 감독이다.

공격수들이 줄부상을 당하자 김 감독은 김신욱의 포지션을 공격수로 바꿨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됐다.

김신욱은 데뷔 첫해 27경기에 나와 7골 1도움을 올리며 공격수로서 자질을 입증했다. 이후 지난해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기 전까지 K리그 350경

기에 출전해 132골 31도움을 올렸다. FC서울의 박종진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선수다.

▶골키퍼 빼고 다 해본 '진짜 멀티플레이어' 유상철·김주성

김주성과 유상철은 골키퍼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서 K리그 시즌 베스트 11를 수상했다.

단순한 포지션 변경을 넘어 모든 포지션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증거다.

1987시즌 공격수로 대구(현 부산)에 입단한 '삼손' 김주성은 데뷔 시즌 28경기에 나와 10골 4도움을 기록했다. 1992년 독일 진출 전까지 포워드

와 미드필더로 뛰었고, 1994년 한국 복귀 후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김주성은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각각 한 번씩(1987, 1991시즌), 수비수로는 세 번(1996, 1997, 1999시즌) 시즌 베스트11에 선정됐고, 1997년에는 수비수로 MVP까지 수상했다.

1994년 울산에 입단한 '유비' 유상철 역시 은퇴 전까지 모든 필드 포지션을 소화해냈다. 데뷔 시즌에 수비수로 시즌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고, 득점왕을 차지한 1998시즌에는 미드필더로, 2002년에는 공격수로 베스트11에 뽑혔다. K리그에서 9시즌을 보낸 유상철의 통산 기록은 142경기 37득점 9도움이다.

연합뉴스



필 미켈슨.

5월 중순 이후 우즈-미켈슨 재대결

자선경기 5월 24일로 예상 무관중·2대2 진행 '불거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와 필 미켈슨(50·미국)의 두 번째 맞대결이 코로나19 관련 자선 경기 형식으로 5월 중순 이후에 펼쳐진다.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터너스포츠는 23일(한국시간) "더 매치: 챔피언스 포 채리티(The Match: Champions for Charity)"라는 명칭의 이 대회는 미국프로풋볼(NFL)스타인 페이튼 매닝(44), 톰 브래디(43·미국)가 함께 참가한 가운데 5월에 열린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열릴 가능

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25일이다. 따라서 우즈와 미켈슨의 올해 맞대결 이벤트는 5월 24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BC 등 다른 미국 매체들은 "5월 15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날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SPN은 "플로리다주가 필 공산이크다"고 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지사 이 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우즈와 미켈슨의 맞대결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올해는 매닝과 브래디가 함께 출전해 2대2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8년 경기처럼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며 TNT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코로나19 관련 성금으로 쓰인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연합뉴스

프로농구 LG 새 사령탑 조성원 명지대 감독 선임

조성원(49) 명지대 감독이 프로농구 창원 LG 감독에 선임됐다.

LG는 23일 "조성원 감독과 3년간 계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3년간 현주엽(45) 감독이 팀을 이끌었던 LG는 2019-2020시즌을 16승 26패, 9위로 마쳐 현 감독과 결별했다.

새 사령탑 물색에 나선 LG는 지난 주 감독 후보들과 면접을 치른 끝에 조성원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로 했다. 조성원 선임 감독은 흥대부고와 명지대 출신으로 여자농구 청주 KB 감독, 남자프로농구 서울 삼성 코치 등을 역임했다.

조성한 선임 감독은 "빠르고 공격적인 팀 컬러로 LG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시체육회 2020년도 우수선수 선발

서귀포시체육회(회장 김태문)가 체육 우수선수를 선발해 지원한다.

서귀포시체육회는 지역 선수 중 경기력이 우수하고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를 추천 받아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총 8950만원이며, 오는 6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체육회는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회원종목단체와 지역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뒤 실무자 검토회의, 인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김태문 회장은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면서 학업과 운동에 균형을 갖춘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주택용 태양광 50%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2020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지원범위 : 세대당 3kW

보조금 : 공사비의 50%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